

홈 > 뉴스 > 전국 > 전북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국제학술대회 개최

'근현대 동아시아 식민통치와 지역공동체의 변화' 주제로 개최

2016년 06월 17일 (금) 15:57:44

김태권 기자 ✉ ktk2467@hanmail.net



(전주=국제뉴스)김태권 기자 = 근현대 동아시아 역사 중심에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의 학자들이 오는 24일 전주대를 찾는다고 17일 밝혔다.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 한국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전주대 스타센터 온누리홀과 지역혁신관 513호에서 '근현대 동아시아 식민통치와 지역공동체의 변화'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고전학연구소는 근현대 변혁기를 보다 새로운 시각으로 이해하기 위해 전통적 정주공간인 '지역'과 '지역공동체'의 변화에 주목하였고 이러한 축적된 연구를 바탕으로 국제학술대회를 마련했다.

학술대회 첫째 날인 24일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의 연구자가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 주변의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지역문제를 가지고, 제1부 지역공동체와 도시공간의 변화, 제2부 근현대 사상과 법제의 변화라는 두 섹션으로 진행된다.

둘째 날 25일에는 제3부 전통시대에서 근대로, 변화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신진연구자인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제3부 진행에 앞서 미즈노 나오키(水野直樹) 일본 교토대 명예교수의 '영화로 본 중일전쟁·태평양전쟁시기의 조선사회-영화 '망루의 결사대'의 새로운 해석'이라는 주제로 콜로키움이 진행된다.

지난 2014년 12월 한국연구재단 '2014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을 통해 구성된 연구팀은 '근현대 지역공동체 변화와 유교이데올로기'라는 아젠다 아래 인간과 지식, 공간과 법제의 융합적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근현대 도시개발과 지역이데올로기의 변용'이라는 대주제로 연구를 진행하며, '근대의 시작, 도시개발과 종교, 문화'라는 소주제로 두 번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 국제뉴스(<http://www.gukje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인쇄하기

 창닫기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24~25일 국제학술대회

‘근현대 동아시아 식민통치와 지역공동체의 변화’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06-17 17:30:29 송고



전주대학교 캠퍼스 전경/뉴스1DB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17일 이 대학 한국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가 24일부터 25일까지 ‘근현대 동아시아 식민통치와 지역공동체의 변화’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학술대회는 이 대학 스타센터 온누리홀과 지역혁신관 513호에서 진행된다.

한국고전학연구소는 근현대 변혁기를 보다 새로운 시각으로 이해하기 위해 전통적 정주공간인 ‘지역’과 ‘지역공동체’의 변화에 주목하고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축적된 연구를 바탕으로 이번 학술대회를 마련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학자들은 학술대회 첫째 날인 24일 제1부 지역공동체와 도시공간의 변화, 제2부 근현대 사상과 법제의 변화라

는 두 섹션으로 학술대회를 진행한다.

또 둘째 날 25일 대학원생들이 제3부 전통시대에서 근대로, 변화와 대응이라는 주제의 섹션에서 발표를 한다. 제3부 진행에 앞서 미즈노 나오키(水野直樹) 일본 교토대 명예교수의 '영화로 본 중일전쟁·태평양전쟁시기의 조선사회-영화 <망루의 결사대>의 새로운 해석'이라는 주제로 콜로키움이 진행된다.

한국고전학연구소는 2014년 12월 한국연구재단 '2014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을 통해 구성됐으며 '근현대 지역공동체 변화와 유교이데올로기'라는 아젠다 아래 인간과 지식, 공간과 법제의 융합적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또 지난해 '근현대 도시개발과 지역이데올로기의 변용'이라는 대주제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근대의 시작, 도시개발과 종교, 문화'라는 소주제로 두 번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승인 2016.06.17



트윗

좋아요

0

근·현대 동아시아 역사의 중심에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의 학자들이 전주대를 찾는다.

19일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 한국고전학연구소는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전주대 스타센터 몬누리홀과 지역혁신관 513호에서 ‘근현대 동아시아 식민통치와 지역공동체의 변화’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미켈란지과병원

전체 임플란트,
무이자분납으로
비용부담 덜자!

임플란트 시 보철
지르코니아로
무료 업그레이드!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는 근·현대 변혁기를 보다 새로운 시각으로 이해하기 위해 전통적 정주공간인 ‘지역’과 ‘지역공동체’의 변화에 주목, 그동안 축적된 연구를 바탕으로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마련했다.

학술대회 첫날인 24일에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의 연구자가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 주변의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지역문제에 대해 제1부 지역공동체와 도시시공간의 변화 및 제2부 근·현대 사상과 법제의 변화라는 두 섹션이 진행된다.

둘째 날(25일)에는 제3부 전통시대에서 근대로, 변화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신진연구자인 대학원생들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에 앞서 미즈노 나오키(水野直樹) 일본 교토대 명예교수는 ‘영화로 본 중일전쟁·태평양 전쟁시기의 조선사회- 영화 ‘망루의 결사대’의 새로운 해석이라는 주제로 콜로키움을 진행하게 된다.

 > 뉴스 > 교육 > 대학교육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국제학술대회 개최

2016년 06월 17일 (금)

남형진 기자

근·현대 동아시아 역사의 중심에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의 학자들이 전주대를 찾는다.

19일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 한국고전학연구소는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전주대 스타센터 온누리홀과 지역혁신관 513호에서 ‘근현대 동아시아 식민통치와 지역공동체의 변화’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는 근·현대 변혁기를 보다 새로운 시각으로 이해하기 위해 전통적 정주공간인 ‘지역’과 ‘지역공동체’의 변화에 주목, 그동안 축적된 연구를 바탕으로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마련했다.

학술대회 첫날인 24일에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의 연구자가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 주변의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지역문제에 대해 제1부 지역공동체와 도시시공간의 변화 및 제2부 근·현대 사상과 법제의 변화라는 두 섹션이 진행된다.

둘째 날(25일)에는 제3부 전통시대에서 근대로, 변화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신진연구자인 대학원생들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에 앞서 미즈노 나오키(水野直樹) 일본 교토대 명예교수는 ‘영화로 본 중일전쟁·태평양 전쟁시기의 조선사회- 영화 ‘망루의 결사대’의 새로운 해석이라는 주제로 콜로키움을 진행하게 된다.

남형진 기자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국제학술대회...24~25일 개최

'근현대 동아시아 식민통치와 지역공동체의 변화'주제

등록 : 2016-06-17 16:43 수정 : 2016-06-17 16:43



(전주=포커스뉴스) 근현대 동아시아 역사 중심에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의 학자들이 전북 전주대를 찾는다. 사진은 전주대 전경. <사진제공=전주대>

(전주=포커스뉴스) 근현대 동아시아 역사 중심에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의 학자들이 전북 전주대를 찾는다.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는 오는 24~25일 전주대 스타센터 온누리홀과 지역혁신관 513호에서 '근현대 동아시아 식민통치와 지역공동체의 변화'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첫째 날인 24일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의 연구자가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 주변의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지역문제를 가지고, 제1부 지역공동체와 도시공간의 변화, 제2부 근현대 사상과 법제의 변화라는 두 섹션으로 진행된다.

25일에는 제3부 전통시대에서 근대로, 변화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신진연구자인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제3부 진행에 앞서 미즈노 나오키(水野直樹) 일본 교토대 명예교수의 '영화로 본 중일전쟁·태평양전쟁시기의 조선사회- 영화 망루의 결사대의 새로운 해석'이라는 주제로 콜로키움이 진행된다.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국제학술대회 오는 24~25일 개최

‘근현대 동아시아 식민통치와 지역공동체의 변화’라는 주제로 열려

온라인 기사 2016년06월18일 10시23분



전주대 캠퍼스 전경

[전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근현대 동아시아 역사 중심에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의 학자들이 전주대를 찾는다.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는 오는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전주대 스타센터 온누리홀과 지역혁신관 513호에서 ‘근현대 동아시아 식민통치와 지역공동체의 변화’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연다.

한국고전학연구소는 근현대 변혁기를 보다 새로운 시각으로 이해하기 위해 전통적 정주공간인 ‘지역’과 ‘지역공동체’의 변화에 주목하였고 이러한 축적된 연구를 바탕으로 국제학술대회를 마련했다.

학술대회 첫째 날인 24일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의 연구자가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 주변의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지역문제를 가지고, 제1부 지역공동체와 도시공간의 변화, 제2부 근현대 사상과 법제의 변화라는 두 섹션으로 진행된다.

둘째 날 25일에는 제3부 전통시대에서 근대로, 변화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신진연구자인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제3부 진행에 앞서 미즈노 나오키(水野直樹) 일본 교토대 명예교수의 '영화로 본 중일전쟁·태평양 전쟁시기의 조선사회-영화 '망루의 결사대'의 새로운 해석'이라는 주제로 콜로키움이 진행된다.

지난 2014년 12월, 한국연구재단 '2014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을 통해 구성된 연구팀은 '근현대 지역공동체 변화와 유교이데올로기'라는 아젠다 아래 인간과 지식, 공간과 법제의 융합적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2015년에는 '근현대 도시개발과 지역이데올로기의 변용'이라는 대주제로 연구를 진행하며, '근대의 시작, 도시개발과 종교, 문화'라는 소주제로 두 번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ilyo66@ilyo.co.kr

이기사주소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186744

홈 > 뉴스 > 교육 > 대학·초중고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국제학술대회

[0호] 2016년 06월 19일 (일) 19:21:32

김영무 기자  m6199@sjbnews.com

근·현대 동아시아 역사 중심에 있는 중국과 일본, 러시아의 학자들이 전주에서 학술대회를 갖는다.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는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전주대 스타센터 온누리홀과 지역혁신관 513호에서 '근·현대 동아시아 식민통치와 지역공동체의 변화'라는 주제로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고전학연구소는 근·현대 변혁기를 보다 새로운 시각으로 이해하기 위해 전통적 정주공간인 '지역'과 '지역공동체'의 변화에 주목했고 이러한 축적된 연구를 바탕으로 국제학술대회를 마련했다.

24일에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의 연구자가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 주변의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지역문제를 주제로 제1부 '지역공동체와 도시공간의 변화', 제2부 '근현대 사상과 법제의 변화'로 진행된다.

25일에는 제3부 '전통시대에서 근대로, 변화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대학원생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에 앞서 미즈노 나오키(水野直樹) 일본 교토대 명예교수가 '영화로 본 중일전쟁·태평양전쟁 시기의 조선사회- 영화 '망루의 결사대'의 새로운 해석'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도 진행된다./김영무 기자